

함평 월야농협 대형 마트·식육식당 신축

인근 상인 “매출 감소” 호소

주민들 “외지 한우고기 판매 축산농 도움도 못뮴”

농협측 “어려운 현실 타개 위해 수익사업 불가피”

함평 월야농협이 대규모 마트와 식육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 소규모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월야농협은 지난 2월 5여명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마트와 식육 식당을 신축했다. 월야농협은 농업인과 지역민에게

양질의 값싼 제품을 제공하고 고품질 한우고기 판매로 지역 축산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월야농협측의 대대적인 판촉 활동으로 인근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6월 광주~영광간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차량이 절반 이상 감소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인들은 “자동차로 5분 거리인 해보면에 ‘나비골 농협마트’가 있는 데도 또 대규모 마트를 개설해 소상공인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지역을 떠나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식육식당 역시 저가의 외지 한우고기를 축산 중매인을 통해 반입, 판매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월야농협은 ‘함평천지 복분자 한우’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으나 판매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등급(2~3등급)의 타지역 한우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월야 농협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관광·외식산업으로 타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함평천지 한우는 명품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바리다에 형식으로 저등급 한우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해명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옹기의 변신

영암군 신북면 산정마을 소공원내 주탑 7m, 보조탑 1.5m 크기의 옹기탑이 설치됐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에 응모해 받은 2천만원으로 설치된 이 옹기탑은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5색 조명등도 갖추고 있다. /영암=김한빛기자 hnkim@

보성 미력 제1춘정제 붕괴사고 ‘인재’ 논란

주민들 “공사차량 통행...제방 무너졌다”

건설업체 “집중호우 탓”

지난달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져 주민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한 보성군 미력면 제1 춘정제(堤) 붕괴원인을 둘러싸고 ‘인재(人災)’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장흥~광양 간 고속도로공사 구간 중 도계터널 공사 현장으로 지난 8월 초부터 H 건설사 등이 저수지 제방의 여수토(餘水吐=저수지 물이 넘치면 자연방류될 수 있는 수로)에 관을 묻고 중장비와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진입로로 사용해 왔

다. 주민들은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는 제방을 공사현장 진입로로 불법 사용했다”며 “저수지 물길을 막은데다 공사 관계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지반 침하 및 균열이 발생, 제방이 붕괴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업체 관계자는 “당시 시간당 100mm 이상의 예상치 못한 강우량으로 담수량이 증가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 제방이 붕괴됐다”며 “보성군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

국제청소년 축구 강진서 열린다

16일부터 한국중등축구연맹배...7개국 8개팀 참가

제 2회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국제청소년 친선축구대회가 16일부터 22일까지 강진에서 열린다.

청소년 축구발전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2개팀)을 비롯해 브라질과 프랑스, 북한, 중국, 일본, 동티모르 등 7개국에서 15세 이하 청소년 축구팀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 청룡팀과 브라질 개막전을 시작으로 8개팀이

2개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거친 뒤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강진군은 대회기간 중 선수단 환영 리셉션과 청자빚기 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안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의뢰지원과 교통통제 등 선수단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가을밤 재롱잔치

화순 이화어린이집(원장 이은영)은 지난 12일 화순읍 부영 1차아파트 인근 잔디밭에서 제 1회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어린이들은 2시간여 걸쳐 리코더와 하모니카, 멜로디언 악기 연주와 풍요 합창 등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남양유업 나주공장 ‘지역민과 함께하기’

준공 앞두고 불우이웃 자매결연·나주배 사주기도

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 남양유업이 공장 가동 전부터 어려운 지역민을 돕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남양유업(주)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나주시 금천면에 유제품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부장급 1명과 과장급 2명 등 모두 10여 명의 직원들이 과건돼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과건 형태로 근무중

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나주지역 불우이웃 50여 명과 자매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사랑의 쌀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랑의 쌀 릴레이’는 나주에서 생 산된 쌀을 구입해 지역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20kg짜리 쌀 1천250포(4천900여만 원 상당)를 결연 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본사 직원 선 물용으로 ‘나주배’ 180 상자(450만 원 상당)를 구입하는 등 모두 280여 상자의 ‘나주배’를 사들여 지역 과수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남양유업 정익구 시설장장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향토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기업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고흥 상습 침수지역 ‘물난리 걱정’ 던다

郡, 208억 투입 도양읍 재래시장 등 복구사업

제 11호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고흥군 상습침수지역이 항구적인 복구 사업으로 물난리 걱정을 덜게 됐다.

고흥군은 고흥읍과 도양읍 재래시장, 상가 주변 일대에 총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해 배수로 설치 등 수해방지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고흥천으로 모이는 물은 부산

시까지 제 3분할교에서 동촌교간 도로 지하에 상자형 통로를 설치, 우회 배수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제 3분할교를 확장, 재가설해 고흥읍내 재래시장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줄이고 고흥천 상류에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을 일시 저장하는 유수지가 설치된다. 도양읍의 경우 시설 노후 등으로 제 기능이 어려운 기

존 배수펌프장을 폐쇄하고 하루에 펌프장을 신설하며 2개의 녹동천 교량은 확장, 재가설기로 했다.

이번 복구사업 대상지역은 지난달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주택 1천300여 채가 침수되는 등 해마다 장마철이면 침수 피해를 입어왔다.

고흥군은 설계와 시공 등 공사 전 단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연내 착공한 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소년·소녀 가장 30여명

추억의 ‘가을 바다여행’

녹동항발전협 주최



고흥 녹동항 발전협의회가 지난 13일 관내 소년·소녀가장 30여 명을 초청해 ‘가을바다 여행’ 행사를 열었다. <사진>

녹동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두리 풍류문화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녹동~초도 간 항로당사를 비롯해 여수시 삼산면 초도농장에서 사물놀이와 보물찾기, 꿈과 희망이 담긴 희망 밴드를 적

어 사회지도층 동행인사와 함께 날려보내는 연날리기 행사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녹동항 발전협의회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행사를 3년째 펼쳐 오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Advertisement for '바다이야기' (Sea Story) restaurant. Features images of seafood dishes, a menu list including '특선코스메뉴' (Special Course Menu) with items like '샐러드, 죽, 사시미, 영덕게, 새우튀김, 문어초회, 활전복구이, 모듬생선구이, 생선지리, 디저트', and '민어회와 각종활어회, 생선구이와 조림, 점심특선'. Includes contact info: TEL. (062)971-9285 and location: 침단롯데마트 뒷편 주차장 입구 침단호사랑병원 사이.

Table with 3 columns: 지역 (Region), 지역명 (Region Name), and 전화번호 (Phone Number).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istricts in Gwangju, including 남구, 서구, 북구, 동구, and 광산구. Includes a note: *총무 및 배달사원을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staff and delivery personnel).